

보도시점 : 2024. 1. 28.(일) 11:00 이후(1. 29.(월) 조간) / 배포 : 2024. 1. 26.(금)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임시인력 약 5,300명 추가 투입 ...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 예상(1,600만 → 1,730만 박스)

-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 간선차량 기사 1,3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000명, 배송기사 1,200명, 동승인력 800명 등

-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지동선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최현우 (044-201-4153)
		담당자	주무관	정상미 (044-201-4155)